



미국 장기금리 상승과 시사점

김세중 선임연구원

■ 1월 29일 2.00%를 기록하며 2%대를 돌파한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2월 1일 2.01%까지 상승한 후 2%수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.

-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%대를 기록한 것은 2012년 4월 17일 이후 9개월 만이며, 1.39%로 저점을 기록했던 2012년 7월 24일에 비해 0.61%p나 상승한 것임.
- 언론에 따르면 워런 버핏의 버크셔해서웨이가 2012년 1월 국채를 대거 매도하였고 세계최대 채권펀드 핼코의 빌 그로스코도 채권투자를 줄였다고 발표하는 등 시장 참가자들은 장기금리의 지속적 상승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남.

■ 미국 장기금리 상승의 이유는 유럽재정위기가 진정되고 미국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살아나면서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약화되었기 때문임.

- 2012년 12월부터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국채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 반면 다우존스 지수는 2012년 11월 15일 12,542포인트로 저점을 기록한 후 활황을 이어가면서 2013년 2월 1일 14,000선의 최고치를 기록함.
- 위험자산 투자심리가 회복되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VIX지수도 꾸준히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2013년 1월 22일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12.43을 나타냄.
- 2012년 4/4분기 미국 GDP성장률은 3년 반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충격을 주었으나 유럽재정위기 문제가 잠잠해지고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도 해결되면서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약화된 것으로 분석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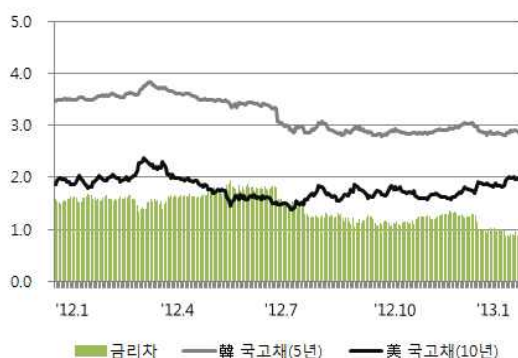
■ 금리의 상승은 신용 비용을 증가시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주택시장과 자동차 등 내구재 소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, 연준이 국채를 꾸준히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금리 상승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.

- 미국 모기지은행연합(MBA)에 따르면 미국 주택 대출 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30년 만기 평균 모기지 금리는 1월 25일 전주대비 0.15%p 상승한 3.67%를 기록한 후 2월 1일에도 3.73%로 상승하였음.
- 그러나 미 연준이 3차 양적완화정책을 통해 2012년 9월부터 매달 850억 달러의 국채 및 모기지 채권을 매입해오고 있고 매입기한은 따로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매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금리 상승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.

■ 반면, 국내 채권금리는 미국과 같은 상승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의 악화가 지속될 경우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.

- 미국의 장기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장기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과 우리나라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간의 스프레드는 2012년 10월 10일 1.1%p에서 2013년 2월 6일 0.89%p로 축소됨.
 - 우리나라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은 2012년 10월 10일 2.78%로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013년 2월 6일 현재 2.85%로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.
- 미국과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디커플링은 주식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, 2013년 2월 6일 현재 미국 다우존스 지수가 2012년 9월 말 이후 4.1% 상승하며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오히려 3.0% 하락함.
- 그러나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의 악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미국과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디커플링이 지속되기 어렵고 우리나라의 국채 금리도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있음.
- 저금리 환경 지속으로 보험산업의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미국 장기금리의 상승 지속 가능성은 긍정적인 모습이며,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

〈그림 1〉 한국, 미국 장기금리 추이



자료: 한국은행, Bloomberg.

〈그림 2〉 한국, 미국 주가지수 추이



자료: Bloomberg.

(WSJ 등)